

밝은 성격 만드는 치아교정, 어떤 교정장치가 좋을까?

기사입력 2012-08-09 11:54



[김민선 기자] 치아교정 치료는 치아와 턱의 위치가 맞지 않을 때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치과의 한 분야이다. 위와 아래의 치아가 맞물리지 않을 때 이를 부정교합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을 교정장치, 헤드기어 등 기능성 장치를 통하여 치아와 턱을 올바른 위치로 맞추어 주게 된다.

치열이 불규칙하게 나는 것을 교정장치로 다시 배열하여 정상적으로 맞물리도록 하여 아름다운 얼굴모양을 만들고 기능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예방 및 치료방법이 바로 치아교정인 셈이다. 그렇다면 치아교정은 왜 중요할까?

구강기능 향상

가지런한 치열과 기능적인 교합은 음식물을 잘 씹을 수 있게 해주고 명확하지 않은 발음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충치와 치주질환 예방

불규칙한 치아배열에서 볼 수 있는 불필요한 치아의 마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치솔질을 가능하게 해줘서 구강 위생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적극적이고 밝은 성격

덧니, 빠드렁니, 돌출된 입술, 주걱턱 등과 같은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 교정치료를 통해 가지런한 치열과 아름다운 미소로 바꿀 수 있다. 밝고 매력적인 미소, 조화로운 외모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경쟁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치아교정은 외모에 민감한 청소년이나 면접을 앞둔 수험생,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아름다운 외모로 변화

수술을 동반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긴 아래턱이나 무턱 등의 얼굴모습을 고칠 수 있다, 또한 수술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라도 돌출된 입 등은 서구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나쁜 습관의 개선

어린이들은 손가락 빨기 등의 나쁜 습관이 들기 쉬운데 이런 습관은 부정교합을 더 심화시킨다. 교정치료를 통해서 이런 나쁜 습관도 고칠 수 있게 된다.

치아교정은 이룰수록 좋다. 6세부터 정기적인 진찰을 받아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정시기를 찾아야 한다. 중, 장년의 나이에도 얼마든지 치아교정 치료를 받을 수 있다. 6세의 아동도 때로는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기에 교정치료를 받아야 하고 60세의 나이에도 교정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현 원장(치의학 박사)은 “최근에는 외모에 민감한 직업을 가진 전문인들의 교정치료도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정장치는 물론 장치가 잘 보이지 않는 투명교정 등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여 적합한 교정장치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한다.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life@wstarnews.com

▶ **말복, 보양식도 변한다 "삼계탕 말고 이거?"**

▶ **미혼男女 36% "바닷가 헌팅 해봤다" 남 > 여**

▶ **LG전자 '옵티머스 LTE 2' 밸류팩 업그레이드 실시**

▶ **폭염의 기세, 9월까지 이어져? 직장인들 "이대로는 일 못해"**

▶ **'갤럭시S3 LTE' 세계 최초 VoLTE 서비스 지원, 기술개발 완료**

